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clarapaik@ownnewengland.com
ClaraPai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생활비가 터무니 없이 비싼 지금 가장 좋은 절약 방법은 정부에서 주는 세금 크레딧을 빠지지 않고 챙기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미국 납세자들은 매년 수익 달러에 달하는 세금 크레딧을 챙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만 하면 1만 달러, 놓치기 쉬운 5가지 연방 세금 크레딧

세금 크레딧은 금액 그대로 세금 탕감 또는 환급 받을 수 있어 은퇴저축 적립 크레딧, 자녀·부양가족 보육 크레딧, 평생학급 크레딧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매년 수백만 명의 미국 납세자들이 신청만 해도 세금을 확 줄일수 있는 연방 세금 크레딧을 모르거나 자격 요건에 대해 잘못 이해해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비, 보육비, 건강보험, 은퇴저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크

레딧이지만, 전문가들은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고 지적한다. 세금 크레딧은 과세소득을 줄이는 공제(deduction)와 달리, 세금 납부액에서 1달러 당 1달러가 직접 차감된다. 세금이 1,000달러 인데 1,000달러 세금 크레딧이 있으면 납부액

<전체 기사 읽기>

은 '0' 이 된다. 반면 1,000달러 공제가 있을 경우 10% 소득세 구간 납세자의 절감액은 100달러에 불과하다.

세금 크레딧에는 환급형, 비환급형(nonrefundable), 일부 환급형(partially refundable) 등 세 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 크레딧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에 적용된다. 근로소득세금 크레딧(EITC)은 대표적 환급형으로 직접 현금으로 돌려주며, 에너지 크 >>13면으로 계속

보스톤코리아 26일자 정기휴간

보스톤코리아는 크리스마스 휴무주간을 맞아 26일자를 휴간합니다. 복된 성탄절과 함께 새해에는 모든 소원하시는 일 이루어시길 기원드립니다. -보스톤코리아임직원 일동-

영주권 1백만 달러, 트럼프 '골드 카드' 신청 시작

270일 세금없이 미국 거주 플래티넘 카드도 대기 접수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트럼프 행정부는 오랫동안 언급해왔던 '골드카드' 판매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골드카드는 1백만달러를 지급하는 신청자에게 미국 영주권을 제공한다.

미국 정부는 골드 카드 공식 사이트를 개설한 후 여러 작업을 거쳐 본격적인 신청 접수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골드카드는 1990년도에 의회가 만들었던 >>13면으로 계속

THE PRO REALTY GROUP 수잔리 부동산

보스톤 투자, 주택, 콘도

셀러(Seller Representative):
리스팅 전문, CMA(Comparative Market Analysis)를 통한 집 가격 산정

바이어(Buyer Representative):
탁월한 협상, 전문적인 정보로 여러분의 재산 증식을 도모

투자(Investment):
전문적 부동산 마켓 인사이트 컨설팅으로 성공적 투자 컨설팅

* 조지아 아틀란타 투자 상담 문의 환영합니다.

경력 20년 이상

TEL: 339.224.1512, 카카오톡 ID: susan 1223
Email: susan@prorealty.group

마이클리 모기지 General Mortgage Capital Corporation

내 집 마련·투자·재융자, 신뢰할 수 있는 최적의 금융 솔루션!
저금리 융자·재융자, 내 집 마련과 투자까지! 믿을 수 있는 모기지 해결사!
모기지 제일 잘 하는 마이크!

Michael Lee, VP of Mortgage Lending, NMLS 1464242
978.314.8818 mtgwithmike@gmail.com
300 Washington St, Suite 315, Newton, MA 02458
GMCC, NMLS 254895

Disclosure: General Mortgage Capital Corporation is an Equal Housing Lender. We do not discriminate based on race, color, religion, national origin, sex, disability, or familial status. Licensed Mortgage Banker-NYS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 This is not a commitment to lend. Terms and conditions apply. All loans subject to underwriting approval.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눈 내린 보스톤 하늘에 울려 퍼진 2세들의 맑은 목소리

뉴잉글랜드 지역 어린이 동요합창제 성황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지역 한국학교협회(회장 남일, 이사장 오인식)가 12월 첫 주말인 6일 제21회 뉴잉글랜드지역 어린이 동요합창제를 개최했다. 이번 합창제는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강당에서 열렸으며, 뉴햄프셔, 메인, 버몬트 등 NE 지역 4개 주에서 모인 11개 팀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이 함께 해 따뜻한 동요 축제를 만들었다.

행사에는 내슈아한마음 한글학교(교장 박노환), 뉴잉글랜드 한국학교(교장 남일), 보스턴장로교회 한국학교(교장 장성철), 보스톤 한국학교(교장 강상철), 우스터 한국학교(교장 윤미량), 보스톤 천주교 한국학교(교장 서용학), 메인 한글학

교(교장 안영례), 푸르미 한국문화학교(교장 신영주) 등 한국학교가 참가했다.

이정설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남일 회장과 광정렬 부총영사는 “어릴 적 즐겨 부르던 동요가 떠오른다”며 “20여 년 긴 세월 동안 2세들이 참가하는 이처럼 아름답고 멋진 행사를 준비하고 개최해 온 협의회 관계자 및 참가 학교의 학생, 학부모 및 지도해 주신 선생님 모두 즐겁고 행복한 마음 가득하시길 바란다.”고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각 학교는 도담누리팀(보스턴장로교회 한국학교), 소원항아리(우

스터 한국학교), 반짝반짝·두근두근팀(보스톤 천주교 한국학교), 몽당연필팀(보스톤 한국학교), 동백꽃·무궁화·소나무팀(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쌍한마음즈팀(내슈아한마음 한글학교) 등 개성 넘치는 팀을 꾸려 무대에 올랐다. 이 팀들은 열심히 연습한 새로운 노래를 발표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뉴잉글랜드 지역 한국학교협회의 주최로 개최되는 동요합창제는 5개 주에 위치한 각 학교들이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나누는 축제를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축하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다.

행사 영상은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rUQ2NBy0HBc>)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보스턴장로교회 한국학교-도담누리팀



우스터 한국학교 합창단-소원항아리



내슈아한마음 한글학교-쌍한마음즈팀

제 21회 뉴잉글랜드 어린이 동요합창제 시상 내역		
최고 발표상	보스턴장로교회 한국학교*도담누리팀	왜 이렇게 덩지
최고 열정상	보스톤천주교 한국학교*반짝반짝팀	행복송
최고 공연상	내슈아한마음 한글학교*쌍한마음즈팀	산토끼 메들리
최고 인기상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무궁화팀	까꿍놀이
최고 목소리상	뉴잉글랜드*소나무팀	앞으로
최고 화음상	보스톤천주교 한국학교*두근두근팀	도레미송
최고 선율상	우스터한국학교팀	소원 항아리
최고 조화상	보스톤 한국학교*몽당연필합창단	아름다운 세상
최고 우정상	메인 한글학교*희망등불팀	종소리 울려라
최고 리듬상	푸르미 한국문화학교	아리랑
최고 열정상	축하공연*뉴잉글랜드 한국학교*동백꽃팀	우리 한글

제21회 동요합창제 시상 내역도 현장에서 발표됐으며, 협의회는 내년 1월 예정된 교장단·회장단 온라인 연석회의에서 2026년 주요 사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 3월 27일에는 ‘2026년도 교사사은회 및 정기연수회’가 열린다.


뉴잉글랜드지역 한국학교협회의 참가 문의는 전화 (508) 523-5389로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서울설렁탕
겨울특선메뉴

사골 떡만두국

진한 사골 국물에 정성으로 빚은 만두가 들어간 든든한 식사로
추운 겨울을 포근하게 보내세요



Take out Available
포장가능

서울설렁탕

SEOUL SOULONGTANG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MA 02134 Tel: 617-505-6771

JUNG KWAN JANG



세계 No.1
공삼브랜드
정관장

정관장에서 만든 믿을 수 있는 공진단 정관장 “황진단”



Korean Red Ginseng Powder	1,360 mg
Korean Red Ginseng Extract	80 mg
Phellinus Linteus Extract Powder	120 mg
Deer Antler Extract Powder	120 mg
Korean Angelica Extract	120 mg
Cornus Officinalis Powder	120 mg

정관장 황진단은 홍삼총 상위 2%로 선별된 지삼을 주원료로 사용하며, 녹용, 참당귀, 산수유, 상항버섯 등 귀한 부원료를 조합하여 만든 제품으로, 무더운 여름 지치고 무기력한 몸에 활력을 주는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MART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 스토어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별링턴점 고객센터 건너편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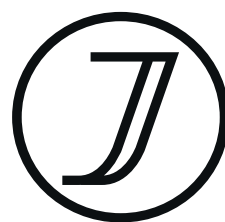
929.600.4880

전화주문 서비스
\$150 이상 구매시 무료 배송



PROUD TO BE INCLUDED IN
**Boston Magazine's Top
 Real Estate Producers
 and RealTrends**

Jason Jeon is a distinguished Boston real estate advisor known for his dedication and exceptional achievements in the industry. What sets Jason apart in his commitment to going above and beyond for his clients, his extensive market knowledge, and his ability to turn challenging situations into successful outcomes. His approach is rooted in a strong work ethic and a genuine care for his clients' needs, making him a trusted advisor and a top producer in the industry.



Jason Jeon
 Vice President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4년 연속 보스턴 매거진 선정 최고의 부동산
 에이전트 2022, 2023, 2024, 2025년**

메사추세츠 상위 1% 에이전트 (RealTrends Verified 2024, 2025)

부동산 전문가인 제이슨과 상의하시고 부동산을 통한 경제적인 자유를
 목표하고 계획하세요. 차별화된 전문성과 경험으로 모든 부동산 매매,
 투자, 개발 관련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AWARDS / HONORS:

- 2022, 2023, 2024, 2025년 **Boston Magazine** 선정 '최고의 에이전트'
- 메사추세츠 TOP 1% 에이전트(**Real Trends Verified 2024, 2025**)
- **Compass** 케임브리지 오피스에서 1등 개인 에이전트로 선정.
 판매 및 고객 만족도에서 최고의 성과 달성
-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 베스트 부동산 프로페셔널' 리스트 등재.





보스톤산악회 제20차 정기 산행, 12월 20일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산악회가 오는 12월 20일 토요일 뉴햄프셔의 가필드 마운틴 (Mt. Garfield)에서 제20차 정기 산행을 진행한다.

산행은 가필드트레일(Garfield Trail)을 따라 왕복 약 9.9마일 구간을 등반하는 일정으로, 난이도는 5단계 기준 4단계로 비교적 높다. 예상 산행 시간은 약 6시간에서 8시간이다.

겨울철 산행인 만큼 필수 장비로 아이젠(Crampons), 헤드랜턴, 스패츠를 준비해야 한다. 이외에도 배낭, 방풍 의류, 우의, 장갑, 모자, 등산화 착용, 스틱, 식수와 간편한 중식 등을 지참해야 한다. 산악회는 "면 티셔츠와 청바지는 땀과 추위에 취약해 금지하며, 기능성 Dry Fit 의류 착용을 권장한다" 고 강조했다. 배낭은 넘어짐 사고 시 신체 보호를 위해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체 기사 읽기〉

산행 당일 집결 시간과 장소는 오전 6시30분, 93번 뉴햄프셔 출구 2번 파크앤라이드에 위치한 보스톤익스프레스버스터미널(Boston Express Bus Terminal)이다. 차량비는 20달러이며, 참가신청 마감은 12월 18일 목요일 오후 6시다. 신청 시 A·B·C조 중 원하는 조편성과 차량 제공 또는 운행 가능 여부를 함께 기재해야 한다. 처음 참여하는 회원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도 남겨야 한다. 신청 후 불참 사유가 생기면 반드시 연락해야 한다.

산행은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날씨에 따라 일정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어 전날 웹사이트 확인이 필요하다. 기타 문의는 617-780-9588(들꽃향기)로 연락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산악회 카페(cafe.daum.net/boston-mountaineers)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인단체 연말행사 안내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오픈하우스 및 총회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로드아일랜드 한인회는 12월 13일 토요일 로드아일랜드 한인회관에서 연말 오픈하우스총회를 개최한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오픈하우스에 간단한 스낵이 제공되며 5시부터는 총회가 시작된다. 총회 후 치킨과 맥주를 곁들인 노래방 행사가 진행된다. **〈전체 기사 읽기〉** 진행될 예정이다. 시간: 토요일 12월 13일 Street parking only 오픈 하우스: 2-4 PM (스낵) 총회: 5 PM ('치맥' 치킨 & 맥주 & "Karaoke") 장 소: 1140 Park Ave. Cranston, RI 02910

시민협회 영리더십 심포지움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시민협회는 12월 20일 오후 5시부터 렉싱턴에 위치한 엘크스(ELKS)클럽에서 한인 2세 청소년들을 위한 영리더십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매리언 라이언 미들섹스 지검장을 비롯한 법조계 인사들과 심리상담 전문 양미아 시민협회이사장이 연사로 여러가지 주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참가는 무료이다. **〈전체 기사 읽기〉** 시민협회는 YLS가 끝나는 7시부터는 기금모금을 위한 송년의 밤 행사를 같은 자리에서 개최한다. 송년의 밤 행사는 전문 디제이 피치가 이끌며 경품 추첨을 통해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증정한다. 참가비는 학생은 \$50, 시니어는 \$75, 일반은 \$100이다. 일시: 12월 20일 5-7시, 7-11시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세벽 SaeByuk Han
박현아 HyunAh Park
김유림 Yulim Kim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김수정 Soojung Kim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콕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재휴업체 | 연합뉴스 | 미션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문제성 도박으로 인해 당신은 삶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당신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도박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mass.gov/DontMissOut을 방문하여 개인, 가족, 및 커뮤니티 지원 서비스를 받으세요.



H MART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DEC. 12th - DEC. 18th, 2025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CHOCO LAVA CAKE

The rich melt, the warm center and the pure chocolate bliss will have you craving this Choco Lava Cake the moment you see it. Treat yourself to holiday perfection.
 입안 가득 퍼지는 따뜻한 진한 초콜릿의 맛. 초코 라바 케이크, H 마트와 함께 더욱 쉽게 만들어보세요.



Chinese Eggplant 중국 가지 LB \$0.99	Bitter Melon 비터 멜론 LB \$1.49	Pomegranate 석류 LB \$2.99	Taiwan Spinach 대만 시금치 LB \$2.99	Mandarin with Leaf 잎 달린 만다린 4 LB/PKG \$10.99	Dragon Fruit White Flesh 용과 LB \$1.49	Korean Pear 한국산 배 PRODUCT OF KOREA 7-11 CNT/BOX \$29.99
Navel Orange 네이블 오렌지 8 LB/PKG \$7.99	Red Cherry 체리 LB \$7.99	Peeled Durian 간 두리안 1.1 LB/PKG \$24.99	Frozen Durian 냉동 두리안 LB \$2.99	Gray Squash 그레이 호박 LB \$0.99	Sharon Fuyu 샤론 단감 BOX \$14.99	Crown Broccoli 크라운 브로콜리 LB \$1.49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Fresh Beef Chuck Eye Roll Steak 생 목등심 스테이크 LB \$10.99	Fresh Beef Heel Meat 생 소사태 LB \$9.99
Fresh Pork Single Belly for BBQ 생 돼지 삼겹살 (바베큐용) SLICED/LB \$7.99	Fresh Pork Spare Ribs for BBQ 생 돼지 갈비 (바베큐용) LB \$3.99
Fresh Boneless Chicken Thigh 생 뼈없는 닭 사태 LB \$2.99	Marinated Tenderized Pork CT Butt Steak 양념 돼지 볶김 목살 스테이크 LB \$5.99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Frozen Red Snapper 홍도미 LB \$8.99	Fresh Hybrid Striped Bass 양식 농어 LB \$7.99
Frozen European Seabass (Branzino) 브란지노 600-800'S/LB \$6.99	Headless White Shrimp 흰새우 16-20'S/LB \$6.99
Frozen Tilapia 틸라피아 600-800'S/LB \$2.99	Frozen Pollock Fillet 동태전감 LB \$3.99

SMART CARD MEMBER ONLY

PALDO Jjajangmen Instant Noodles with Black Bean Sauce 팔도 일품 짜장면 7.05 OZ X 4 EA/PKG \$5.99	PALDO Rabokki Noodles 팔도 라볶이 5.11 OZ X 4 EA/PKG \$5.99
ORION Shark Gift Box 오리온 상어 선물세트 23.32 OZ \$10.99	THE HOUSE MANDU Pork & Shrimp Dumpling 그 집 만두 새우 왕교자 20 OZ \$6.99

HARU HARU Medium Grain Milled Rice 하루하루 쌀 15 LB \$11.99	RAW NATURE Lightly Milled Brown Rice 자연담은 칠분도정으로 부드러운 현미 15 LB \$13.99	HAIO Seasoned Bean Paste [Ssam-jang] 해오름 사계절 원조 쌈장 2.2 LB \$3.99	HALLA FOOD Tuna Sauce 한라식품 참치액 16.9 FL OZ \$6.99	HAIO Frozen Seasoned Pollack Roe 해오름 명란젓 2.2 LB \$22.99
PULMUONE Soupy Topokki 풀무원 국물떡볶이 SPICY 14.9 OZ \$4.99	PULMUONE Soupy Topokki with Ramen Noodles Kit 풀무원 국물떡볶이 SPICY 17.6 OZ \$4.99	OSAKI BRAND Fish Cake 오사끼 게맛살 1.1 LB \$6.99	HG Fried Fish Cake (Assorted) 황궁어묵 부산 장인들의 어묵 2.01 LB \$5.99	GOMPYO Wheat Flour 곰표 CO-BRAND 밀가루 5.5 LB \$3.99
HAIO Canned Whelk 해오름 굴뱅이 캔 14.1 OZ \$5.99	HAITAI Honey Butter Chip 해태 허니버터칩 4.23 OZ 2\$6	GLASS LOCK Divided Food Container 글라스락 직사각 유리 밀폐용기 (칸칸이) 670 mL/920 mL/1000 mL -\$7.49-\$10.49 \$4.49-6.99	DAILYLIKE Frill/Laminated Apron 데일라이크 프릴/라미네이트 앞치마 BLUE CERRY -\$27.99 \$21.99	ZOJIRUSHI Stainless Mug 조지루시 스테인레스 머그 16 OZ WHITE/BLACK -\$47.99 \$21.49

JINGA SIDE DISHES

Want authentic Korean? Always ready to eat of ways the highest quality!

한국전통의 맛이 그리울 때는 진가 모듬반찬을 드셔보세요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전염력 강한 노로바이러스 매사추세츠에서 급증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설사와 구토, 발열을 동반하는 노로바이러스가 매사추세츠를 비롯한 미 전역에서 급증하고 있다.

스탠포드대학과 예모리대학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하수도 감시프로그램 웨이스트워터스캔(Wastewater-SCAN)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는 지난 10월 중순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다. 보스톤과 밀버리에 있는 하수도 감시 검출에서도 10월 중순 이후 바이러스가 꾸준히 증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모임이

많은 크리스마스와 새해 이후 급증하는 경향이 있으나 올해에는 지난 11월부터 급증하고 있다고 질병통제센터는 밝혔다.

질병통제센터는 각 주 보건부와 병원의 자발적인 보고를 통해 사례를 집계하지만 대부분의 감염자들이 감염후 병원을 찾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정확한 감염 집계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CDC의 집계보다는 하수도 검사 프로그램의 결과가 훨씬더 직접적이고 정확할 수 있다.

질병통제센터에 따르면, 매년 2천5백여건의 노로바이러스 발병이 집계되

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노로바이러스 유발의 주요 발병인자였던 변이 GII.17가 올해들어 유전자변형을 통해 더욱 감염력을 증강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30여년간 노로바이러스를 일으킨 주된 변이는 GII.4였으나 지난해부터 GII.17이 지배적 유전자변이로 자리 잡았다.

베일리의대 로버트 애트머 교수는 NBC뉴스에 “바이러스 자체가 더 쉽게 퍼지도록 변했을 가능성과, 사람들의 감염이 이전보다 쉽도록 변화했을 가능성이 함께 작용했을 것” 이라고 말했다.

CDC에 따르면, GII.17 변이는 강한 구토, 극심한 설사, 복통을 유발하며 특히 5세 미만 유아, 85세 이상 고령자, 기저질환자에게 위험하다. 탈수를 가장 주의해야 한다.

새로운 변이가 등장하면 사람들의 면역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더 쉽게 감염되고 증상도 심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자와의 직접 접촉, 오염된 음식과 음료 섭취, 바이러스가 묻은 표면을 만진 뒤 손을 제대로 씻지 않은 경우 등 다양한 경로로 쉽게 전파된다. 비누와 따뜻한 물을 이용한 손 씻기, 위생 관리 강화가 확산방지의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으로 꼽힌다.

메드포드 초등학교서 노로바이러스 집단감염 의심... 결석 130명 넘어 학교 하루 휴교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메드포드의 로버츠(Roberts) 초등학교에서 130명 이상의 학생이 복통·구토 등 증세로 결석하면서 11일 하루동안 학교를 휴교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관계자는 이를 노로바이러스 집단 감염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잔 갈루시 메드포드 공립학교 임시 교육감과 미셸 크로웰 교장은 10일 오후 학부모 공지에서 “수요일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위장 질환 신고가 들어왔다” 며 다음날 등교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메드포드 보건국과 주 보건부와 협의의 결과 최근 매사추세츠와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노로바이러스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수요일 하루에만 100명 이상 결석했으며, 등교한 학생과 교직원 중에서도 다수가

속이 메스꺼움 등 유사 증상을 호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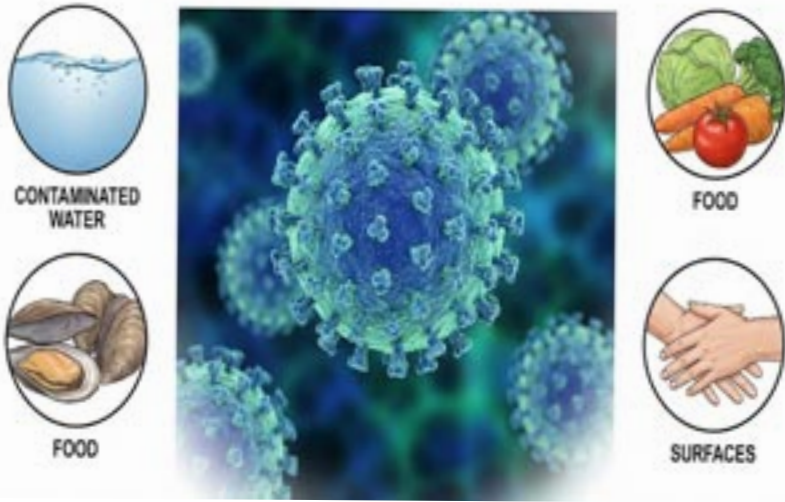
‘장염 바이러스’ 로 널리 알려진 노로바이러스는 전염력이 매우 강하고 구토·설사를 유발하는 대표적 바이러스다. 스탠포드·예모리 대학이 운영하는 하수도 감시 데이터(WastewaterSCAN)에 따르면 최근 몇 주 사이 매사추세츠에서 노로바이러스 수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학교는 11일 전문 청소 업체를 투입해 건물을 완전 소독할 예정이며, 추가 원인 배제를 위해 보건당국이 급식실 장비도 점검할 계획이다. 로버츠 초등학교는 결석일 보충 학사일정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구토 등 증세가 있는 학생과 교직원에게 “증상이 멈춘 후 최소 24시간은 등교·출근하지 말 것” 을 권고했다.

hsb@bostonkorea.com

NOROVIRUS STRUCTURE & TRANSMISSION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휴람 만성수술

직업병, 식습관, 생활환경으로 오는 만성질환?

병원 선택/ 의사 선택/ 예약 및 치료절차/ 치료 후 사후 관리/ 비용 등... 이 모든 걱정으로 선택 못하신 고국방문 수술.

휴람은 국내수거로 부담없는 비용에 편안하고 안전한 진행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치질, 담낭용종(결석), 탈장, 하지정맥류, 요실금, 자궁근종, 전립선비대증, 코골이, 목/허리 디스크, 관절질환, 암질환, 심장/뇌혈관질환 등등.

좋은 가격!!! 높은 퀄리티!!! 친절한 서비스!!!

휴람은 상담부터 치료진행,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에 검사하신 기록이 있으시다면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 수술은 병원에 따라 입원기간 및 비용, 서비스들이 상이 합니다.

휴람 척추관절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중앙대학교병원(흑석역) / H+양지병원(신림역) / 세란병원(독립문역)
 강남지인병원(학동역) / 장트윈트병원(서울대입구역) / 강남병원(신갈역)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u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협력업체



기쁨을 주십시오, 위험 말고.

복권은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웹사이트
mass.gov/YouthGambling
 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p>이사 이 제 봉 DIRECTOR 781.654.5281 jetlee@bostonpremierrealty.com</p>	 <p>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김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stave@bostonpremierrealty.com</p>	 <p>매니저 캐시 송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cathyong@bostonpremierrealty.com</p>	 <p>매니저 크리스틴슨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christine@bostonpremierrealty.com</p>	 <p>매니저 신 보 경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boahn@bostonpremierrealty.com</p>
---	--	--	--	---







































대표 나 원 태
PRESIDEN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줄리 전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니키 박 617.447.0591 nikkipark@gmail.com	피터 주 617.780.7839 thepeterjunteam@gmail.com	지나 최 978.866.3248 thepeterjunteam@gmail.com	이현주 401.935.3397 hyunju0921@gmail.com	
					
사라 유 617.838.5787 sarah@bostonpremierrealty.com	그레이스 정 617.455.7710 grace.jeong@bostonpremierrealty.com	황수진 617.538.6973 sujiwang1@gmail.com	마사 송 213.503.0397 marcia@bostonpremierrealty.com	미키 최 413.507.1402 micki Choi@gmail.com	손창배 617.913.3369 son@bostonpremierrealty.com
					
최진민 617.877.0387 jinchoi52@bostonpremierrealty.com	이영순 781.800.3412 bostonyl@bostonpremierrealty.com	한혜숙 781.999.1214 hhan@bostonpremierrealty.com	차민영 617.515.1162 minyong@bostonpremierrealty.com	이준균 617.543.5728 jun@bostonpremierrealty.com	메건 리 404.641.5102 megan@bostonpremierrealty.com
					
Tammy Woolfolk 917.224.5610 tammy@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9952 nancywang600@gmail.com	Shirley Zhao 857.231.0316 shirley.zhao.boston@gmail.com	Vivian Yu 617.935.2713 viviany@bostonpremierrealty.com	Xian Dole 413.522.8979 xiangu2022@gmail.com	Lu Jiang 240.449.0117 jianglbox@gmail.com
					
John Tran 617.406.9652 john@bostonpremierrealty.com	Rebecca Phu 617.833.1088 becca@bostonpremierrealty.com	Michael Somma 978.873.0076 mike@bostonpremierrealty.com	Linda Ta 857.210.8830 linda@bostonpremierrealty.com	Jun Wang 646.270.2923 jun.wang@bostonpremierrealty.com	Lily Wang 617.938.7212 lege@bostonpremierrealty.com
					
Crystal Wei 413.308.0255 crystal@bostonpremierrealty.com	빈센트 박 201.446.8595 vince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크 김 781.956.0409 drjakekim@bostonpremierrealty.com	이상현 857.260.0434 sanglee@bostonpremierrealty.com	Mimi Belanger 413.237.1586 mimiyi111@hotmail.com	

제5회 동해·독도 지명표기 조사활동 시정 공모전 시상식 개최

뉴잉글랜드 7개 한글학교·개인 참가자 100여 명 참여
김예준 총영사상, 석리안 저학년 전체 대상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지역 한국학교협의회(회장 남일, 이사장 오인식)는 지난 12월 6일 제5회 동해·독도 지명표기 조사활동 시정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참가한 학생들을 격려했다. 공모전은 10월 공지, 11월 작품 제출 및 심사를 거쳐 12월에 시상하는 일정으로 운영됐다.

외교부와 보스톤 총영사관, 보스톤코리아, 뉴잉글랜드지역 한국학교협의회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공모전은 2021년 첫 대회 이후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 내슈아한마을 한글학교,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보스턴장로교회 한국학교, 보스톤 한국학교, 보스톤천주교 한국학교, 메인 한글학교, 푸르미 한국문화학교 등 7개 한글학교와 개인 참가자까지 약 100명이 참여해 그림일기, 포스터, 발표영상, 지도교사 보고서 등 4개 부문에서 작품을 출품했다.

행사는 협의회 손연주 간사의 사회로 시작해 이정설 총무의 대회 경

〈전체 기사 읽기〉

과 보고가 이어졌다. 이정설 총무는 올해 출품작뿐 아니라 지난 1~4회 대회의 대표작과 학생들이 직접 진행해 온 시정 요청 활동의 성과도 함께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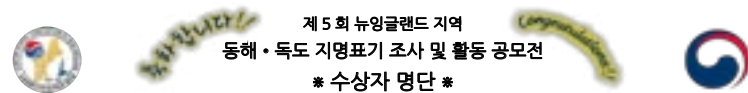
보스톤 총영사관 광정렬 부총영사는 축사를 통해 “수상자 여러분 모두에게 축하를 전하며, 매년 행사를 준비해 온 협의회 임원들과 각 학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 밝혔다. 이어 “독도는 우리 땅이며,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주장하는 영유권 분쟁은 성립할 수 없다” 며 “한국인은 자유롭게 독도를 방문할 수 있지만 일본인은 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그 명확한 증거” 라고 강조했다. 또 동해 표기의 병기 필요성에 대해서도 사례를 들어 쉽게 설명해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남일 회장도 “대회를 후원해 준 외교부와 보스톤총영사관 김재휘 총영사, 바쁜 일정에도 참석한 광정렬 부총영사, 그리고 참여한 모든 학생·교사·학부모들께 감사드립니다” 고 말했다.

올해 심사는 각 학교 추천 교사로 구성된 심사단이 맡았고, 전체 대상작은 전년도 심사위원이었던 경희대 주성재 교수, 강상철 보스톤한국학교 교장, 장명술 보스톤코리아 대표가 평가했다. 주 교수는 “지역 2세 학생들이 동해·독도 문제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조사하고 각 기관에 시정을 요청하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 이라며 “저학년 대상작은 저작권을 걸고 싶을 만큼 창의적이었고, 고학년 대상작은 학술 컨퍼런스에서 발



(위) 고학년 전체대상을 받아 총영사상을 수상한 김예준 학생(애머스트 한국학교), (아래) 저학년 전체대상을 수상한 석리안 학생(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제 5회 뉴잉글랜드 지역 동해·독도 지명표기 조사 및 활동 공모전 * 수상자 명단 *					
전체 대상	대한민국 주 보스톤 총영사상 (8-11 학년 부문)		김예준		애머스트 한국학교 11 학년 발표 영상 부문
	뉴잉글랜드 지역 한국학교 협의회 회장상 (K-7 학년 부문)		석리안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4 학년 포스터 부문
참가 부문	학년	금상	은상	동상	감치상
그림일기	K	김태오 (뉴잉글랜드)	전시아 (보스톤 천주교)	이신디 (보스톤 천주교)	김리아 · 박클로이 · 세우라 마리아 손레아 · 안로운 · 윤다빈 · 이찬휘 정은수 · 최하은 · 황조노아
	1	민주혁 (내슈아 한마을)	전유원 (내슈아 한마을)	석리엘 (뉴잉글랜드)	고리 아리엘 · 김도하 · 김지우 노이안 · 라운반 · 박새빈 · 손노아 신서아 · 심케일리 · 오아진 · 윤경민 윤진성 · 이낸시 · 이지안 · 임누리 장민준 · 강우주 · 전유하 · 한다을
	2	홍지우 (뉴잉글랜드)	김로이 (보스톤 천주교)	데빈 규태 워트 (내슈아 한마을)	김서아 · 박인우 · 성태오 · 송예원 윤주노 · 이준휘 · 이지호 · 임태오 최하영 · 탁이안 · 홍유하
포스터	3	이시은 (보스톤 장로교회)	정아리아나 (내슈아 한마을)	윤라미 (메인)	김미나 · 나리아 · 한루크
	4	한다연 (뉴잉글랜드)	윤거스 (메인)	마르텔 송이 (뉴잉글랜드)	강지구 · 심이은
	5	박하은 (뉴잉글랜드)	이주안 (뉴잉글랜드)	김예찬 (개인참가)	강민우 · 리우 자라 · 신수정 이지윤 · 조은 · 조의랑
	6	백지유 (뉴잉글랜드)	차예린 (뉴잉글랜드)	헤이즐 머리 (뉴잉글랜드)	강진우 · 이예나 · 임하은
발표 영상	7	김예랑 (개인참가)	이성호 (보스톤 천주교)	이현진 (뉴잉글랜드)	윤루이 · 이지혜 · 카버 스미스 한유주
	8	오유태 (뉴잉글랜드)	남현우 (뉴잉글랜드)		
	9	김예린 (애머스트)	이은재 (뉴잉글랜드)		
지도교사 보고서	10	정아리 (뉴잉글랜드)	오유진 (뉴잉글랜드)		
		이준호 (뉴잉글랜드)	강한나 (푸르미) 이정현 (보스톤 천주교)		
전체 대상 수상작 학교상		애머스트 한국학교		학교장: 이주미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학교장: 남 일	

표해도 손색없을 수준이었다” 고 밝혔다. 그는 “그만큼 수준이 높아 전체대상을 결정하기 어려웠다” 고 심사소감을 전했다.

시상식은 그림일기 부문부터 전체 대상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안영례, 박노환, 강상철 교장과 장명술 대표가 부문별 시상을 맡았고, 고학년 전체대상(보스톤총영사상)은 광정렬 부총영사가, 저학년 전체대상(협의회 회장상)과 교사부문 수상자

는 남일 회장이 시상했다. 참가 학생과 교사들은 상장과 선물을 받고 기쁨을 나누었다.

동해 독도 공모전은 독도의 영유권과 동해 지명표기 문제를 학생들이 직접 알아보고 조사하며 사실에 근거해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시정활동을 진행함으로써 한인 2세로서 애국심과 정체성을 형성하고자 하는 목표로 매년 진행되고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DEC. 11TH - DEC. 18TH, 2025



Bung-eo-ppang Fish Shaped Red Bean Bun

용의궁 용궁에서 온 대왕 붕어빵

2.64 LB(10 buns) ~~REG. \$16.99~~

\$10.99

LIMIT 2



EDIYA COFFEE

Blend Coffee Mix

이디야 커피믹스 3종

\$11.99

SPECIAL GOLD/SPECIAL MOCHA/
AROMA BLEND HAZELNUT
110 STICKS/BOX

LIMIT 2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Somerville 240 Elm St, Somerville, Ma 02144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Brookline 1028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유권자 3명 중 1명 매사추세츠 떠나는 것 고민... 생활비 "터무니없어"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에 사는 유권자 3명 가운데 1명은 지난 1년 동안 주를 떠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스톤글로브(Boston Globe)와 서퍽대학(Suffolk University)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유권자 500명 가운데 3분의 1이 지난 1년 사이 "타주로 이주하는 것을 고려했다" 고 답했다. 이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매사추세츠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고 평가한 것과 동시에 나온 결과라 더욱 눈에 띈다.

매사추세츠에서의 생활의 질은 좋지만 높은 물가와 주거·세금 부담이 갈수록 커지면서 "이대로는 못 살겠다" 는 정서가 짙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유권자들이 꼽은 가장 큰 경제적 고민은 '물가와 생활비' 였다. 응답자의 약 37%가 이를 최대 우려 요인으로 지목했고, 25%는 의료비 부담을 1순위 걱정거리로 꼽았다. 주택 구입·임대비용 등 주거비 부담을 가장 큰 문제로 본 응답자는 17%, 세금 문제를 꼽은 응답자는 10%였다.

앞으로의 재정에 대해서도 비관적 전망이 우세했다. 응답자의 75%는 앞으로 1년 동안 자신의 재정 상황이 "지금과 비슷하거나 더 나빠질 것" 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살림살이를 어렵게 할까. 응답자의 5분의 1가량은 가계 예산을 가장 압박하는 지출 항목으로 '유틸리티 요금' 을 꼽았다. 매사추세츠는 캘리포니아(California), 하와이(Hawaii)에 이어 미국에서 세 번째로 전기요금이 높은 주다.

홀브룩(Holbrook)에 사는 윌리엄 웨버(79)는 겨울이 되면 침실 온도만 화씨 72도(약 22도)로 유지하고 집 나머지 공간은 60도

(약 15.5도) 안팎으로 낮춰둔다.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은 콘센트에서 직접 뽑아두고, 주정부의 '매스 세이브(Mass Save)' 프로그램에도 두 차례 참여해 난방비 절감을 시도했다. 그러나 요금은 여전히 "말도 안 되게 높다" 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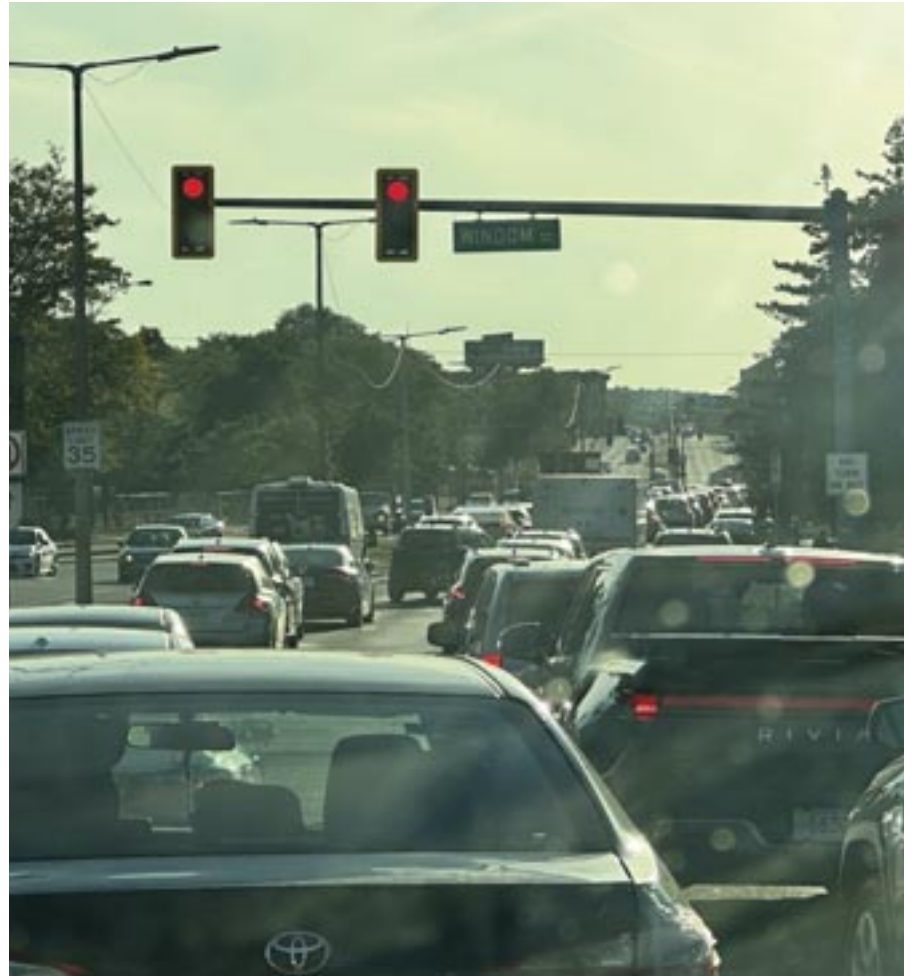
매사추세츠 주정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웨버는 주택 이주를 생각하진 않지만 "지난 몇 년간 물가 상승은 과도하다" 며 다른 주민들의 고민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매사추세츠를 '세금 공화국' 에 빚댄 별칭 '텍사추세츠(Taxachusetts)' 를 농담처럼 꺼내는 이도 있다. 오크햄(Oakham)에 사는 호스피스 관리자 랄프 디키아라(69)는 "나는 뉴잉글랜드(New England) 사람이 라 여기서 계속 살고 싶다" 면서도 아내와 함께 "우리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 라는 질문을 입에 달고 산다고 했다.

그는 "재산세는 오크햄으로 이사 오며 오히려 더 올랐고, 성인이 된 아들은 이주해서 집을 살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졌다" 며 "예전에는 직장 하나로 아파트, 자동차,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불가능하다" 고 말했다.

주민 이탈은 정책 결정자들의 주요 고민이다. 모라 힐리 주지사(Governor Maura Healey)는 사람과 기업을 유치하고 유지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으며, 내년 선거에서도 이 성과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최근 인구 유출이 소폭 개선된 것만으로도 행정부는 "고무적" 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실제 이탈 인구는 여전히 많다. 국세청(IRS)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약 20만 명이 매사추세츠를 떠났다. 대학을 위해



들어왔다 떠나는 18세에서 24세를 제외하면 순이탈이 더 크며, 특히 25세에서 54세 경제활동 핵심 연령층은 2만4천 명 가까이 빠져나갔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주를 고민한 응답자가 양 끝 연령층인 18세~24세, 50세~64세에서 두드러졌다. 또 절반 이상은 공화당 등록자이거나 보수 성향으로, 매사추세츠의 민주당 우위 정치 성향도 일부에게는 이탈 요인이 되고 있다.

보스톤대학교(Boston University) 분석

에 따르면 인구 유출은 2021년 주 재정에서 조정총소득 43억 달러, 세수 2억1천370만 달러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전체 인구는 2023년에서 2024년 사이 약 1% 늘었다. 팬데믹 이후 타 주로 이동하는 인구가 줄었고, 이민자 유입이 증가한 영향이다.

오크햄의 디키아라는 "나는 뉴잉글랜드 사람이고 가능한 한 여기 머물고 싶다" 며 "그러나 떠나고 싶게 만드는 요인이 너무 많다" 고 말했다.

KIM LAW OFFICE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업무 분야:
이민법 / 상법 / 형사법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사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 지부 연방 범죄관련 직접 수사
- 前 미 육군 심문관

TEL: 617.742.7707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형제 떡집

(현재 영업중)

978.870.0508
978.870.0043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MA 에너지요금 폭등... 원자재 상승 아닌 정책·투자비가 문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주민들이 전기·가스요금 청구서의 엄청난 금액에 불만이 쏟아내고 있다. 서퓌크대학-보스톤글로벌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20% 이상이 공과금이 가계 예산을 가장 크게 압박하는 요인이라고 답할 정도다.

보스톤글로벌은 요금 폭등의 원인이 단순히 전기·가스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지난 수년간 누적된 정책적 결정, 대규모 인프라 투자, 그리고 그에 따른 각종 부과금이 청구서 '전달비(Delivery)' 항목에 쌓이면서 요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이후 에버소스(Eversource)와 내셔널그리드(National Grid)의 전력 '분배(distribution) 비용'은 약 50% 인상됐다. 발전소에서 각 지역으로 전력을 끌어오는 '송전(transmission)' 비용은 지난 6년 동안 70% 이상 뛰었다. 송전 비용은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감독 아래 ISO-뉴잉글랜드가 결정한다.

가스 요금도 비슷한 구조다. 10여년 전만 해도 가스 청구서의 3분의 2가 연료 비용이었지만, 현재는 전달·관리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처럼 전달비용이 비대해진 이유는 매사추세츠는 에너지요금에서 환경·기후정책 비용을 징수하는 구조를 오랫동안 운영해왔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에너지 효율화 프로그램인 매스세이브(Mass Save)다.

아카디아센터 분석에 따르면 매스세이브는 "1달러 투자하면 2.69달러의 장기적 편익"이 발생해 분명 효과적이지만, 이러한 프로그램 비용이 요금에 계속 추가되면서 전달비 부담을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전체 기사 읽기〉

릭 설리번 전 주 에너지환경부 장관은 "Mass Save와 기타 청정에너지 프로그램 비용이 요금에 반영되면서 전달비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비 투자 인센티브도 요금 폭등 부추겼다. 전력·가스 회사는 에너지 판매로는 이윤을 얻지 못한다. 대신 인프라 투자액에 7~9%의 이익을 보장받는 구조다. 예를 들어 1억 달러를 투자하면 1억800만 달러를 받게 되고, 이 인센티브는 수년간 요금에 반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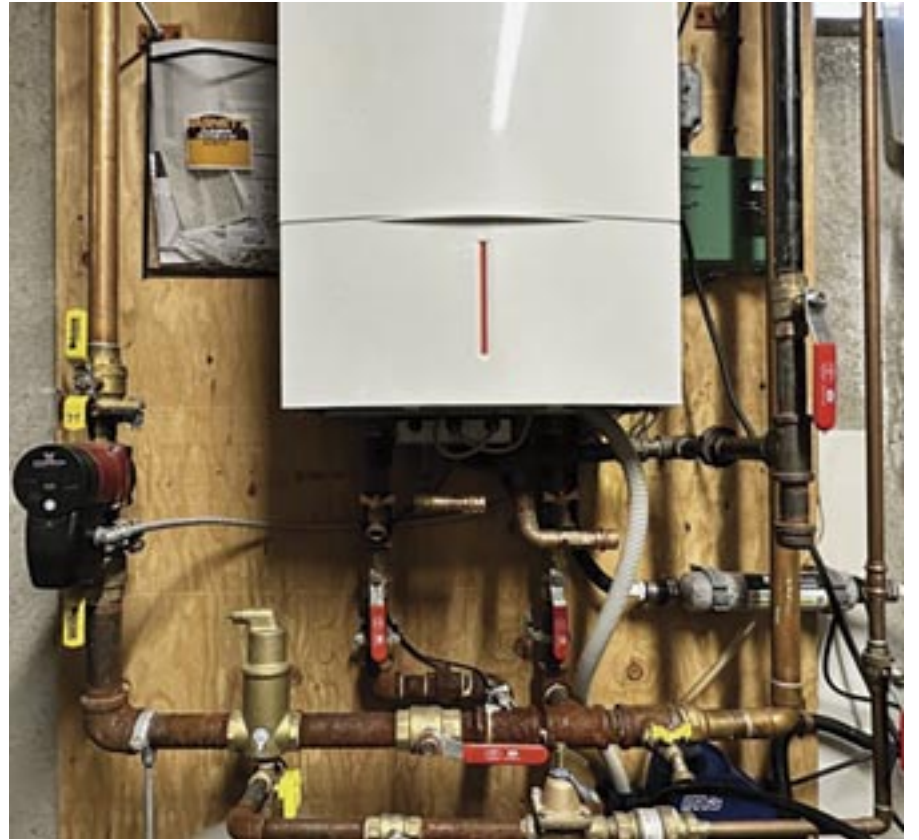
이 때문에 "설비 투자 자체가 기업에 이익"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했다. 우스터에 기반한 에너지 컨설턴트 브랜던 라킨-코넬리는 "투자 비용이 한 번 반영되면 장기적으로 요금에 누적돼 소비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진다"고 설명했다.

최근 송전 인프라 '자산 상태 개선 프로젝트(asset condition projects)' 비용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13~2016년 연간 1억 달러 미만이던 관련 투자는 2018년 5억 달러를 넘었고, 2024년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했다.

가스 고객의 청구서를 가장 크게 올린 요인 중 하나는 '가스 시스템 개선 프로그램(Gas System Enhancement Program·GSEP)'이다. 노후 파이프 교체·보수 비용을 요금으로 회수하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2015년 이후 매사추세츠 유틸리티들은 56억 달러 이상을 GSEP에 투입했고, 올해만 9억1000만 달러가 소요됐다. 이 비용은 60년 이상 요금에 반영된다.

연구자 도리 시비는 "가스 사용은 줄어드는데, 막대한 가스 인프라 교체 비용이 남



아나중에는 소수 고객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분석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고객은 이번 세기 동안 GSEP에 총 418억 달러를 부담하며, 이는 고객 1인당 평생 약 3만1,000달러에 해당한다.

주정부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규제에 나섰다. 최근 파이프 교체 대신 다른 저비용 대안을 먼저 검토하도록 강제하는 등 GSEP 비용 억제 조치를 시행했다.

모라 힐리 주지사는 일부 요금을 폐지하고, 유틸리티 감시를 강화하며, 신규 원자력 기술을 포함한 에너지 공급 다양화를 검토하는 '에너지 부담 완화 법안'을 추진 중

이다. 시행될 경우 일부 고객은 연 수백 달러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ISO-뉴잉글랜드도 올가을부터 송전 프로젝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요금에 들어가 있는 기존 투자 비용이다.

주 관계자들은 "앞으로의 비용 상승은 제어할 수 있어도, 이미 요금에 반영된 과거 인프라 투자비는 되돌릴 수 없다"고 인정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개선책은 논의되고 있지만, 당장의 에너지 요금 인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와 당국의 공통된 전망이다.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ee@mwlc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J.K. 히팅 & 플러밍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Dish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508.517.7035

엄재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MA ,15777

신청만 하면 1만 달러, 놓치기 쉬운 5가지 연방 세금 크레딧

▶▶1면에 이어서

레딧은 대표적 비환급형으로 내야 할 세금에서 차감은 가능하나 현금으로 돌려주지 않는다.

다음은 2025년 세금신고에서 많은 납세자가 놓치는 대표적인 5가지 연방 세금 크레딧이다. 이들 세금 크레딧은 본인이 챙기고 서류도 준비해야 한다.

1. 은퇴저축 적립 세금 크레딧 (Retirement Savings Contributions Credit)

IRA, 401(k), 403(b) 등 은퇴저축에 적합한 납세자는 비환급형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한 ABLE 계좌 적립도 해당된다.

크레딧은 적립액의 최대 50%이며, 최대 2,000달러까지 가능하다. 2025년 기준 조정총소득이 3만9,500달러 이하인 1인 가구는 최대 1,000달러, 부부 공동 신고 시 소득 7만9,000달러 이하이고 부부 모두 기여했다면 최대 2,0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단, 롤오버 적립금은 포함되지 않으며, 최근 은퇴계좌 인출 기록이 있으면 크레딧이 줄어든다. 타인에게 부양가족으로 신고되거나 18세 이상 전일제 학생이면 대상이 아니다.

신고 시 IRS 양식 (Form) 8880 제

출이 필요하다.

2. 자녀·부양가족 보육 세금 크레딧 (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

여름 캠프, 방과 후 돌봄(after-school care) 비용도 크레딧 대상임에도 이를 모르고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이 크레딧은 근로 또는 구직을 위해 필요한 돌봄 비용에 대해 비환급형 세금 크레딧을 제공한다. 13세 미만 자녀 또는 신체·정신적 사유로 스스로 돌봄이 어려운 성인 피부양자도 포함된다.

2025년 기준 크레딧 대상 비용은 한 명일 경우 3,000달러, 두 명 이상은 6,000달러까지며 소득에 따라 20~50%가 크레딧으로 적용된다. 소득 제한은 없지만 소득이 높을수록 크레딧 비율은 낮아진다.

직장에서 Dependent Care FSA 혜택을 받았어도 5,000달러 이상 지출 시 일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신고 시 Form 2441 제출이 필요하다.

3. 평생학습 세금 크레딧 (Lifetime Learning Credit)

대학원, 직업교육, 자격증 취득 등 경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에 대한 비환급형 세금 크레딧이다. 많은 납세자가 첫 4년 대학 지원에만 적용되는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과 혼동해 놓치는 경우가 많다.

2025년 최대 크레딧은 학비·책값 등 최대 1만 달러의 20%, 즉 최대 2,000달러이다.

소득요건은 조정총소득 8만 달러 이하(부부 공동 신고 시 16만 달러 이하)에서 전액 가능하며, 단일 신고의 경우 8만~9만 달러, 공동 신고는 16만~18만 달러 구간에서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부모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하면 자녀 본인이 신청할 수 없으며, 부부 별도 신고자는 대상이 아니다.

신고 시 Form 8863 제출이 필요하다.

4. 에너지 효율 주택 개선 세금 크레딧 (Energy-Efficient Home Improvement Credit)

문·창문 교체, 단열, 고효율 HVAC, 히트펌프, 태양광 패널 설치 등 에너지 절감 설비를 도입한 기존 주택 소유자는 연말까지 비환급형 세

금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다.

많은 납세자가 이 크레딧이 올해까지 유효하다는 사실을 모른다.

지출액의 최대 30%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3,200달러다. 예를 들어 에너지 감사는 150달러, 창문 교체는 최대 600달러 크레딧이 적용된다. 제조사 등록번호(QMIN)가 포함된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5.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중·저소득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환급형 세금 크레딧이지만, IRS에 따르면 응당 받을 수 있는 사람의 5명

중 1명은 신청하지 않는다.

2025년 크레딧은 자녀가 없는 경우 최대 649달러이지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최대 8,046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단 근로소득 한도는 단독 신고 시 최대 6만1,555달러, 부부 공동 신고 시 최대 6만8,675달러다.

이 외에도 투자소득 1만1,950달러 이하, 유효한 소셜시큐리티번호 보유,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부부 별도 신고는 대부분 제외되지만 일부 별거 요건 충족 시 예외가 적용된다.

신고 시 Form 1040 또는 1040-SR, 자녀가 있는 경우 Schedule EIC 제출이 필요하다.

영주권 1백만 달러, 트럼프 '골드 카드' 신청 시작

▶▶1면에 이어서

EB-5 투자이민을 대체하게 된다. 골드 카드는 신청 후 신원조사를 통과하고 1백만 달러를 내면 최단 시간에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이 승인되고 기여금을 낸 신청자들은 대개 몇 주 만에 EB-1 또는 EB-2 비자 소지자로서 법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카드의 신청 수속 수수료는 신원조회 및 각종 서류진행 작업에 각 1만5천 달러를 부과하게 된다. 신청이 승인되고 기여금을 낸 신청자들은 대개 몇 주 만에 EB-1 또는 EB-2 비자 소지자로서 법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기업 골드 카드는 비용이 1인당 200만 달러(약 29억4천만원)이며,

기업이 미국 영주권을 받을 소속 임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연간 1%의 '유지 수수료'도 붙는다. 또 기업 골드 카드의 임직원 명의를 변경할 경우 5%의 변경 수수료와 함께 신규 신원조회 수수료가 부과된다.

아직은 대기명단 신청만 받는 플래티넘 카드는 받으려면 내야 하는 돈이 5백만 달러(약 73억5천만원)이며, 영주권 프로그램은 아니다. 플래티넘 카드 소지자는 미국 외에서 올린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최대 270일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백악관은 6월에 골드 카드 신청 대기 사이트를 개설했다.



✝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aint Antoine Daveluy Korean Parish

주일 미사 Lord's Day Mass
오전 9시 30분(English)
오전 11시(Korean)

평일 미사 Weekday Mass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토요일(매달 첫째) 오전 10시 30분

성당연락처 Contact Us
45 Ash Street, Newton, MA 02466
(617)558-2711 office@BostonKoreanCatholic.org
www.BostonKoreanCatholic.org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불우한 한인 돕기 - 사랑 나누기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지역 내 어려운 한인들을 위한 지원

뉴턴에 위치한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주임 신부 배웅진 크리스토퍼)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보스턴 지역 내 어려운 한인들을 지원하는 '사랑나누기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종교의 유무에 관계없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힘들어하는 한인들을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성당으로 연락해 주시면 신부님과 사회복지분과에서 상담하여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공동체와 함께 따뜻한 손길을 모아 물질적, 정서적, 영적 지원을 포함하는 사랑나누기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문의 및 후원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전화: 617-558-2711
이메일: help@bostonkorean catholic.org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ADU 확산 캠페인, 더 쉽게 더 저렴하게

힐리 주지사 “더 쉽게, 더 저렴하게 ADU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매사추세츠주가 주 전역에서 추가주거공간(ADU·Accessory Dwelling Unit) 건설을 더 쉽고 저렴하게 만드는 새로운 캠페인을 발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혜택관련 내용은 내년이나 본격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모라 힐리 주지사는 10일 렉싱턴 소재 ADU가 건축된 단독주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ADU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ADU는 단독주택 부지 안에 별도로 지을 수 있는 별채 같은 소규모 주거공간으로, ‘그레니 플랫’이나 ‘인로아파트’라고도 불린다. 힐리 주지사가 지난해 서명한 ‘어포더블 홈즈 법’은 단독 주거지역에서 ADU를 기본적으로 허용해 주택 공급 확대와 비용 절감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법 시행 후 첫 6개월 동안 주 전역에서 ADU 신청은 약 900건을

기록했다. 주정부는 이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설계, 기술지원, 금융의 세 가지 영역에서 ADU 확산을 위한 새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이는 최근 타주에 비해 ADU 인센티브가 턱없이 모자라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먼저 주거·커뮤니티 개발청(HLC)은 12월 15일 ‘ADU 디자인 챌린지’를 시작한다. 이는 누구나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고품질 표준 설계안을 마련해 사전 개발비용을 낮추고, 인허가 과정도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스트턴뱅크재단, 보스톤 파운데이션, AIA 매사추세츠, MHP 등이 후원하며 총 6만 달러에서 7만 달러 규모의 상금과 운영비가 확보됐다. 우승작은 내년 4월 발표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매사추세츠 하우스 팍트너십(MHP)은 2026~2030년 자본 투자계획에서 확보한 1천만 달러를 활용해 ADU를 짓고 싶은 주택

소유주에게 기술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새로운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만든다. 이 프로그램은 사전 개발 단계부터 건설 과정까지 전반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향후 주 전역 정책 설계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역할도 맡는다. MHP는 이 프로그램이 처음 2년 동안 수백 개의 ADU 건설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대출도 포함된다. 매스하우징(MassHousing)은 ADU 건설 비용 조달이 어려운 가구를 위

해 저금리 보조모기지 형태의 신규 대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승인된 2천만 달러 규모의 미션 지향 주택소유 프로그램 중 일부가 ADU 건설 금융에 투입되며, 기존 주택담보대출 접근이 어려운 저·중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이 제공된다. 시행 시점은 2026년 초로 예상된다.

힐리 주지사는 “ADU는 노년층의 독립적 삶, 장애인의 가족 인근 거주, 젊은 세대의 주거비 절감 등 다양한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실용적 주택 해법”이라며 “이번 캠페인은 설계, 자금조달,

건설 과정의 문턱을 낮춰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매사추세츠는 주택 부족이 심각한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힐리-드리스콜 행정부는 2023년 신설한 주거·커뮤니티 개발청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어포더블 홈즈 법, MBTA 커뮤니티 법, 유휴 국유지 주택 개발, 상업용건물의 주택 전환 등 주요 정책을 통해 힐리 주지사 취임 이후 만여개의 신규 주택이 신축되었거나 착공 단계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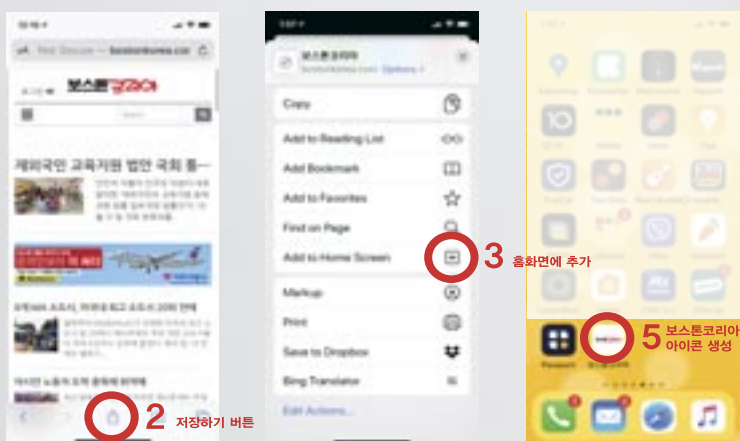
보스톤코리아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세요!

보스톤코리아 스마트폰 홈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하기

보스톤코리아를 핸드폰 홈화면에 바로가기를 두고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아이폰

- 1 아이폰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화면을 클릭하면 화면 밑부분에 <저장하기> 버튼이 형성됩니다.
- 3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저장하기 화면을 위로 끌어 올리면 <홈화면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 4 보스톤코리아 아이콘에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안드로이드폰

- 1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우측 상단 세로 점 세개를 터치합니다.
- 3 우측에 열리는 메뉴에서 홈화면에 추가를 터치합니다.
- 4 바로가기 아이콘이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

하늘을 수놓는 드론부터 얼음 위의 낭만까지, 보스턴 크리스마스의 모든 것

〈전체 기사 읽기〉

(보스턴=보스톤코리아) 김유림 기자 = 보스

턴 커먼에 설치된 노바스코샤의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이 켜지면서 보스턴의 크리스마스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올해는 특별히 Meet Boston과 보스턴 시가 주최하는 첫 번째 "Frostival"의 일환으로 더욱 화려한 이벤트들이 펼쳐진다.

하늘을 수놓는 수백 대의 LED 드론쇼부터 역사 깊은 프로그폰드 아이스 링크, 푸르덴셜 센터의 31일간 이어지는 타워 조명쇼와 겨울 정원, Assembly Row의 다채로운 홀리데이 프로그램, 그리고 보스턴 하버를 따라 펼쳐지는 낭만적인 코코아 크루즈까지, 보스턴의 겨울은 온몸으로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이벤트들로 가득하다.

이번 겨울, 보스턴은 단순히 추운 계절이 아닌 마법 같은 경험의 시간으로 탈바꿈했다.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이 특별한 순간들을 만끽해보자. 보스턴의 크리스마스는 단지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느끼는 것이다.

홀리데이 드론쇼 - 보스턴 커먼의 밤하늘을 수놓다

Meet Boston과 보스턴 시가 주최하는 보스턴 최초의 "Frostival"의 핵심 이벤트로, 수백 대의 LED 드론이 보스턴 커먼 상공에서 동기화된 공중 퍼포먼스를 펼친다. 드론들은 Boylston Street와 Charles Street 코너에서 출발해 눈송이, 순록, 크리스마스 트리 등 겨울과 홀리데이를 상징하는 다양한 형상을 하늘에 그려낸다. 전통과 혁신이 만나는 이 특별한 쇼는 보스턴을 겨울 관광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매김하게 만들고 있다.

12월 13일과 20일 토요일 저녁 오후 6시와 8시 두 차례 진행되는 이 드론쇼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어 더욱 매력적이다. 따뜻한 코코아를 들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늘을 올려다 보는 순간, 미래적인 기술과 홀리데이의 따뜻함이 어우러진 감동을 경험할 수 있다. 보스턴 커먼의 역사적인 공간이 첨단 기술의 무대로

변신하는 이 놀라운 광경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이다.

장소: Boston Common, 139 Tremont Street, Boston, MA 02111

날짜: 12/13/2025, 12/20/2025 (토요일)

시간: 오후 6시 및 오후 8시 (두 차례 공연)

웹사이트: <https://www.meetboston.com/event/holiday-drone-show-on-the-common/87966/>

푸르덴셜 센터 31 Nights of Light - 하늘을 물들이는 빛의 향연

푸르덴셜 센터가 17번째 선보이는 31 Nights of Light는 12월 한 달 31일 동안 매일 밤 보스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푸르덴셜 타워를 다른 색으로 밝힌다. 이 빛들은 지역 비영리 단체들을 조명한다. 각 단체가 선택한 고유의 색상으로 매일 다른색의 타워를 경험해 볼 수 있다. 타워는 보스턴 스카이라인의 상징적인 랜드마크가 되어 도시 전역에서 관람할 수 있다. 해질녘 오후 5시에 불이 켜지며, 선정된 단체들은 푸르덴셜 센터의 Center Court에서 상징적인 "스위치 켜기" 행사를 주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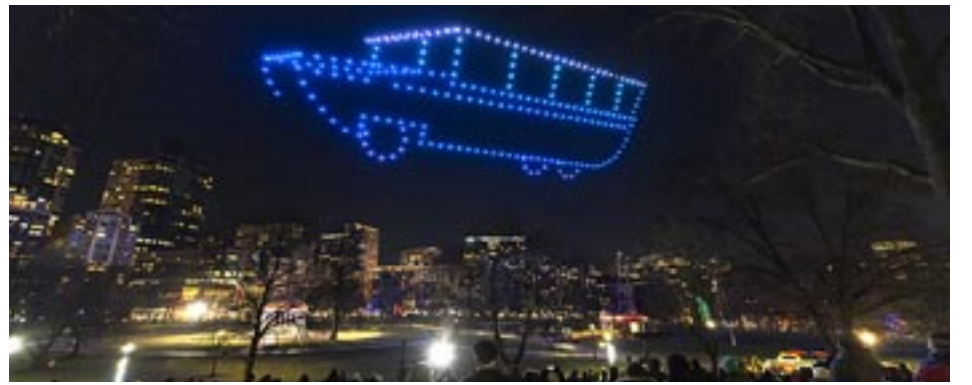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아름다운 조명쇼를 넘어 지역 사회의 의미 있는 활동을 알리고 비영리 단체들에게 가시성을 제공하는 특별한 플랫폼이다. 보스턴의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마다 각 색상 뒤에 숨은 의미 있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는 것도 이 시즌의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 각 색에 따른 비영리단체 정보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푸르덴셜 센터 내에서는 홀리데이 마켓, 산타 방문 등 다양한 부가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 장소: Prudential Center, 800 Boylston Street, Boston, MA

• 날짜: 12월 1일 - 12월 31일 (매일)

• 시간: 매일 저녁 해질녘 오후 5시부터

• 웹사이트: <https://www.prudentialcenter.com/experiences/events/31-nights-of-light/>



푸르덴셜 센터 Winter Garden - 빛과 소리가 만드는 신비로운 겨울 정원

푸르덴셜 센터의 South Garden이 MASARY Studios가 창조한 몰입형 빛과 사운드 설치 예술 Winter Garden으로 변신했다. 이 야외 체험 공간에서는 동기화된 조명, 사운드, 그리고 빛을 반사하는 조각품들이 매 순간 반짝이고 변화하며 천상의 안무를 펼쳐낸다. 최첨단 조명 타워와 맞춤형 제작된 사운드스케이프가 정원을 생동감 있게 만들며, 움직임과 색상의 매혹적인 "발레"를 통해 방문객들을 겨울 밤의 마법 속으로 초대한다.

보스턴의 Fort Point에 기반을 둔 MASARY Studios는 사운드, 빛, 인터랙티브 요소, 그리고 퍼포먼스를 활용한 장소 특정 설치물을 통해 환경을 재해석하는 다학제적 아티스트 집단이다. 이 무료 공개 체험은 Center Court의 Blue Bottle Coffee 옆 South Garden 입구를 통해 들어갈 수 있으며, 쇼핑과 식사 후 잠시 멈춰 서서 겨울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제공한다.

• 장소: Prudential Center South Garden (Center Court 입구, Blue Bottle Coffee 옆), 800 Boylston Street, Boston, MA

• 날짜: 12월 4일 (목요일) - 12월 18일 (목요일)

• 시간: 오후 4시 - 오후 9시

• 웹사이트: <https://www.prudentialcenter.com/experiences/events/winter-garden/>
Assembly Row 홀리데이 이벤트 - 가족과 함

깨하는 크리스마스

Somerville의 Assembly Row는 11월 말부터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다채로운 홀리데이 이벤트로 가득 차 있다. North Pole Christmas Trees 팝업 스토어에서는 신선한 크리스마스 트리와 수제 리스를 판매하며, Santa's Shed에서는 산타와 함께하는 전문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되는 "Crafts, Cocoa & Christmas Cheer"는 무료 핫초콜릿, 어린이 공예 활동, 라이브 홀리데이 음악으로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12월 11일 오후 6시에는 Ugly Sweater Crawl 행사로 참가자들이 우스꽝스러운 스웨터를 입고 어셈블리 로우에 위치한 다양한 레스토랑과 카페를 돌며 음식·음료 시식과 홀리데이 분위기를 즐기는 이벤트다. 티켓 소지한 21세 이상만 참여할 수 있다. 또, Cradles to Crayons와 파트너십으로 진행되는 Giving Trees 프로그램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위한 선물 기부도 받고 있어, 크리스마스의 나눔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 장소: Assembly Row, Somerville, MA

• 날짜: 11월 22일 - 12월 24일 (이벤트별 상이)

• 시간: Crafts, Cocoa & Christmas Cheer -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1시-3시

• 웹사이트: <https://assemblyrow.com/events/>

PGA 골프 레슨

PGA Class A 멤버 티칭 프로가 Pro 지망생, 초중고 골프선수 처음 배우는 초보부터 상급자까지 맞춤형 레슨, 전문 골프 레슨합니다.

Young PGA Professional 

617.458.2733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영혼의 심터
2세, 3세들을 위한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핸디맨 앤디

HANNDYMAN ANDY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mchae@dependableusa.com
web: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매년 7월
장소: 보스턴
문의: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sj.usgtf@gmail.com

857.600.6755 
마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신영의 세상 스케치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004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칼럼니스트, 목사



skyusa21@gmail.com

“감사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16-18)

한 해의 끝에서 다시 서는 자리, 2025년의 끝자락, 우리는 또 한 번의 시간을 지나 하나님 앞에서 있다. 한 해의 마지막은 단순한 달력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붙드셨다는 증거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의 성경은 말하고 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환경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제목들을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고자 한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다. 한 해를 돌아보면, 고난도 있었고 예기치 않은 사건도 있었지만, 우리가 여기까

지 온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다. 우리는 숫자로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한 해를 살았다. 병 가운데서 회복된 분, 사고를 피한 분, 마음의 상처에서 일어난 분, 그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

둘째,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야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025년은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시기였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공급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만나를 경험했다. 많이 거두어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두어도 부족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정을, 가정을, 사역을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채워주셨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

셋째,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시키셨다. 시편 147편 3절의 말씀처럼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한 해 동안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아픔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화

해를 주시고, 때로는 눈물 속에서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우리의 내면을 회복시키셨다. 때로는 화해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미움 대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 그것도 회복의 은혜이다. 하나님은 상처 위에 기름을 바르시는 분이시다.

넷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켰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까지의 말씀 중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2025년을 돌아보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진 자리가 있다.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셨다. 우리가 성숙해졌기에 올해 만난 문제들 앞에서 작년과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성장은 항상 조용히, 그러나 깊게 일어난다. 2025년의 모든 경험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도구였음을 믿는다.

다섯째, 하나님은 감사의 눈을 열어주셨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처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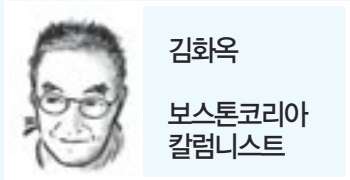
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문제가 없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 감사이다. 그래서 올 한해를 돌아보면, 우리의 감사가 더욱 깊어지고, 넓어졌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다.

2025년을 넘어 2026년을 향하여 가는 시점에서, 감사는 과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열어가는 ‘영적 열쇠’이다. 시편 65편 11절의 말씀처럼 “주의 은택으로 년사에 관썩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우리는 미지의 미래를 두려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이미 준비하셨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로 새해를 맞이하길 기도한다.

Hallelujah!!
Praise the Lord!!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AI가 읽는 한담객설-I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한담객설(閑談客說)’은 보스톤 코리아 신문의 고정 칼럼으로, 다양한 주제에 대한 필자의 생각과 의견을 담고 있으며, 일상적인 이야기를 담백하게 풀어내는 글입니다. ‘일사일언(一事一言)’이나 ‘횡설수설(橫說豎說)’과 같은 다른 신문의 칼럼들과 유사한 성격을 가집니다.

• 성격 및 내용: 이 칼럼은 정치, 사회, 문화, 개인적인 경험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독자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는 통찰력 있는 에세이 형식의 글입니다. ‘한담객설’이라는 이름 그대로 ‘한가한 이야기 손님의 이야기’라는 뜻이며,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으면서도 깊은 의미를 전달합니다.

• 특징: 때로는 날카로운 비판과 통찰을 담은 글이기도 합니다. 읽으며 당혹감이 앞섰다가 글이

날카로운 비판과 통찰을 담아냈다 했으니 말이다. 글쎄, 한담객설 줄문들에서 깊은 통찰이 보이는 지 그건 아리송하다. 그러나 AI에게는 그렇게 읽히는 모양이다. 독자들께서도 그렇게 읽으신다면 겸연쩍다.

AI는 한담객설의 성격과 내용, 특징까지 두루 훑어 살피긴 했지만, 그렇지만 어색한 부분도 없지는 않다. 한담객설을 한가한 이야기라 했고, 손님의 이야기라 했으니 말이다. 문자적 해석으로야 한담은 한가한 소리인건 틀림없지만, 객설이 손님의 이야기라면 어색하다. 오히려 객쩍은 소리인 게다. 허접한 이야기라는 뜻인 바

이젠 두드리기만 하면 세상이 올라오고 펼쳐진다. 발전하는 과학기술 덕분에, AI덕인 게

다. 얼핏 떠오르는 낱말이 있었다. . 온전중이었는데, 다가가야 닿는 다라는 말이었다. 이어 여러 구절들이 꼬리를 물었고, 기독교 성경 구절도 함께 했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AI와 한담객설이 관련되어 어지는 요약이다. ‘한담객설 칼럼에서 AI나 기술 발전에 대한 내용을 다룬 적은 있으나, 칼럼 자체가 AI에 의해 작성되거나 AI 기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줄문도 AI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강변할 수는 없다. 줄문이나 글쓰기에서도 급진보하는 과학기술이 필요한 시대인 게다. 자판을 두드리면 글줄들이 떠오른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마태 7:7)

몇주전 한국신문 기사이다. 한국 삼성과 현대차 총수가 엔비디아 CEO를 만났단다. 맥주집에서인데, 맥주잔을 기울였고, 큰관심을 끌었다고 했다. 회사 엔비디아는 AI 분야에서 선두를 달린다고 덧붙었다. 웬 AI? 난 그저 인공지

능이라고만 알고 있었다. 뭘 잘못 놀렸던가. 음식을 주문하고 그저 기다리는 중이었다. 무료하던 차에 셀폰을 들고 들여다보며 한담객설을 두드렸다. 아니, 이럴수가. 한담객설을 요약한 게 AI를 통해 났다. 그대로 옮긴다.

JUNG KWAN JANG



정관장이 준비한

연말 선물보따리

행사 기간: 12월 5일 ~ 12월 31일

SALE
UP TO 20%

\$200 이상 구매시 10% 할인

\$300 이상 구매시 15% 할인

\$500 이상 구매시 20% 할인

행사1



보자기 포장 제공

홍삼정 240g

홍삼정 리미티드 (3개입)

천녹, 달임액 구매시

행사2

*이 제품은 질병을 진단, 치료, 치유, 또는 예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에 따라 효과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균형잡힌 식단과 건강한 생활 습관과 함께 응용 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문구들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NO.1 WORLD'S NO.1 GINSENG BRAND

125 125 YEARS OF QUALITY & PURITY

420 420 QUALITY & SAFETY TESTS

FIND OUT MORE



JUNGKWANJANG.US/

f @ / KGCUS

보스톤정관장 벨링턴 H마트 204호 (3 Old Concord Rd) 전화: 929.600.4880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세란병원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맑은 날에는 여름보다 더 강한 겨울 자외선, 눈 보호하세요



겨울의 맑은 날씨에는 여름보다 더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눈이 위협하다.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휴람 의료네트워크 세란병원 안과센터 김주연센터장의 도움을 받아 겨울철 자외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은 햇빛과 자외선이 여름보다 약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자외선(UV)은 계절과 상관없이 존재하고, 겨울철에는 눈과 얼음이 자외선을 반사하기 때문에 맑은 날에는 여름보다도 더 강한 자외선 노출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눈의 자외선 반사율은 약 80~90%로 모래보다 훨씬 높다.

자외선은 UV-A(320~400nm)와 UV-B(280~320nm)가 눈에 영향을 준다. UV-B는 에너지가 강해 피부 화상과 각막 손상의 주된 원인이 된다. 눈에서는 각막과 결

막에 흡수돼 급성 손상을 유발하며 대표적인 질환은 광각막염(설맹)이 있다. UV-B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익상편과 백내장 발생 위험이 커진다. 자외선 반사율이 높은 스키장이나 물막, 모래 해변에서 특히 위험하다.

UV-A는 구름과 유리창을 통과하는 자외선으로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노출된다. 눈에서는 수정체와 망막까지 도달할 수 있어 장기적인 손상을 유발한다. 특히 산화 스트레스로 수정체 단백질을 변성시키고 혼탁이 생겨 백내장과 황반변성 등 퇴행성 질환 위험을 높인다.

결막 흰자 부분이 자라나서 각막 검은자위로 덮여 들어오는 익상편도 자외선이 주요 원인이다. 익상편은 삼각형 모양으로 자라며 심하면 시야를 가린다. UV-A, UV-B에 의해 결막 세포가 자극 받으면 만성 염증 및 조직 증식이 일어난다. 설맹은 강한 UV-B 자외선에 노출돼 각막 상

피세포가 화상을 입는 질환으로 자외선 노출 후 6~12시간이 지나 극심한 눈 통증과 눈물, 눈부심이 나타난다.

휴람 의료네트워크 세란병원 안과센터 김주연 센터장은 “겨울철은 스키와 등산 등 야외활동 시 눈에 반사되는 자외선이 증가하고 건조한 공기와 찬 바람도 안구 표면을 손상시켜 증상이 악화된다”며 “겨울철 자외선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UV-A와 UV-B를 모두 차단하는 UV400 선글라스 착용이 필수이며 장시간 야외활동 후 눈의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연 센터장은 “자외선은 구름을 통과하기 때문에 맑은 날 설원에서 활동할 경우 축면 차단 기능이 있는 고글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흐린 날에도 반사되는 자외선으로 인한 안손상을 막기 위해서 차단 안경을 써야 한다”며 “자외선과 건조함, 찬바람은 모두 눈 건강의 큰 적이며 야외

활동을 할 경우 눈을 꼭 보호해야 한다. 눈부심과 같은 증상이 생길 경우 바로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맑은 날에는 여름보다 더 강한 겨울 자외선, 눈 보호하세요”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문의 :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수남 팀장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M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재외동포청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



PARENTS | CAREGIVERS
STUDENTS

2025 YOUNG LEADERS SYMPOSIUM

Join experts to hear their experiences, insights, and feats. The panel will explore pursuing a career in law, impact of bullying & hazing on a child's mental health, and substance abuse.

Stay on the right side of the law.

Distinguished Panel



DA Marian Ryan
Middlesex County
District Attorney



Mia Yeung
LMHC, LMFT
Chair, KACL-NE



Sam Kim
Lt. US Navy
Chaplain



Esther Kim
Law Student
3:03 Prosecutor

Key Discussions & Insights (Symposium is FREE)

- ✔ Bullying & Hazing
- ✔ Depression & Mental Health
- ✔ Underage Drinking or DUI
- ✔ Career in Public Service

RSVP: Newenglandkacl@gmail.com
Lexington Elks Club
959 Waltham St., Lexington, MA



20 December 2025 at 5- 7 PM

Fundraiser to follow at 7 pm.
Student Ticket price \$50.



More information
617-299-0294



Visit our website
kacl-ne.org

BostonKorea.com 광고와 함께 확실한 비즈니스 성장을 이루어 보세요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law@lookjs.com

백영주 부동산

617.921.6979
clarapaik@gmail.com

나무 건축

617.775.4771
info@namuma.com

제이슨 전 부동산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최은경 부동산

781.690.4389
Chris.choi@compass.com

캠브리지 한인교회

155 Magazine Street,
Cambridge, MA 02139

보스톤 그레이스 비전 한인 교회

910.670.4858
info@gracevisionumc.org

성요한 교회

781.861.7799
stjohns2600@hotmail.com

김성군 변호사

781.438.6170
info@songkkimlaw.com

수잔 리 부동산

339.224.1512
susan@prorealty.group

켈리 김 모기지

617.733.5014
kkimthielen@radiusgrp.com

Grace Kim 보험

978.800.3467
grace.kim@ebshealth.us

Hmart
hmart.com

▶▶ Meet Me at

the MFA ▶ Winter Events

▶ Art ▶ Exhibitions ▶ Events ▶ Community ▶ Art ▶ Exhibitions ▶

\$5 Third Thursdays

Hanukkah

- ▶ Thursday 12/18
- ▶ \$5 admission after 5 pm



Exhibition

Martin Puryear: Nexus

- ▶ Through 2/16

Exhibition

Winslow Homer in Watercolor

- ▶ Final weeks
- ▶ Closes 1/19



MFABoston

▶ **Museum of Fine Arts, Boston**
 465 Huntington Avenue, Boston, MA 02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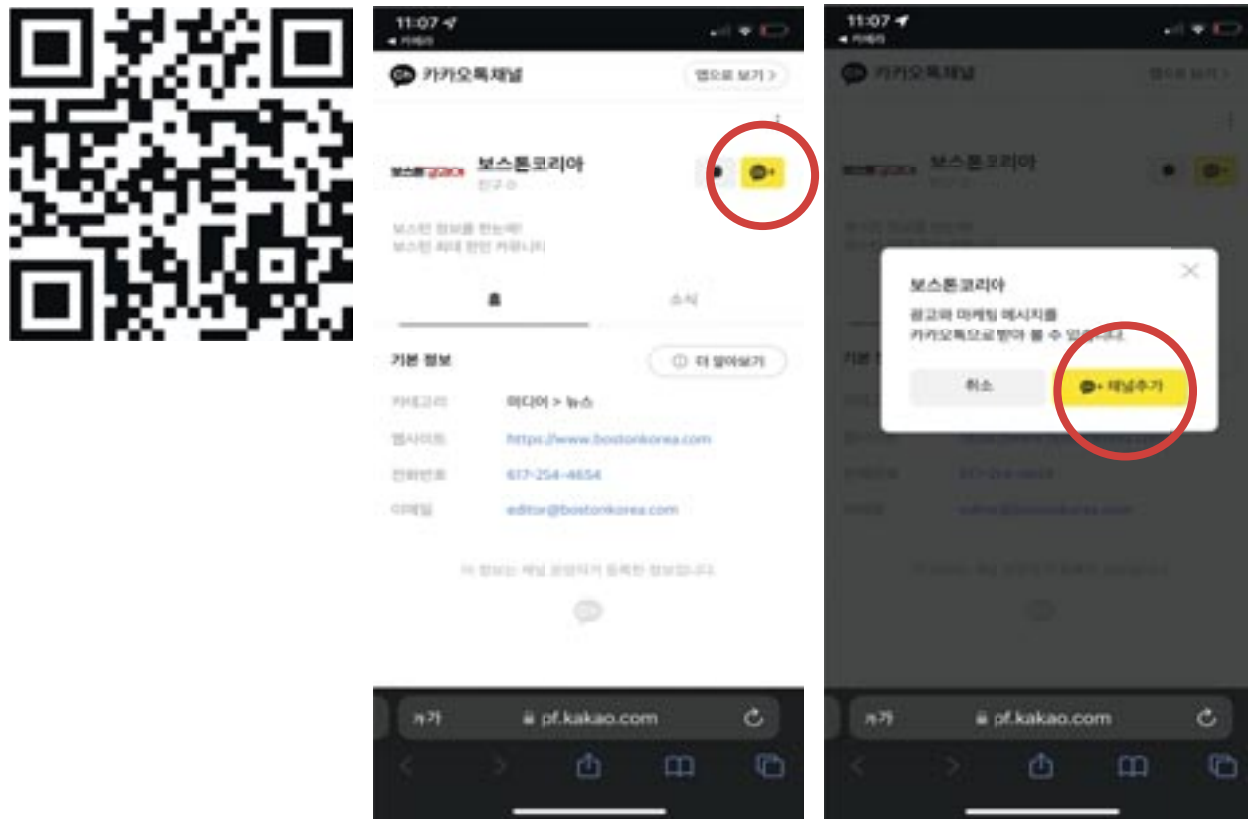
보스톤코리아 신문, 이제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1
- 2
- 3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25

Fundraising for Our Future Young Leaders

송년의 밤

Year-End Party

A party to spread joy, share a hot cooked meal, and dance the night away with NY's hottest DJ Peach! Bring the entire family and all your friends. Tickets on sale now.



Saturday
20 December, 2025



Start From
07:00 pm - 11:00 pm



Lexington Elks Club
959 Waltham Street, Lexington

TICKETS ON SALE



kacl_ne



Door Prizes
Raffle
Buffet
DJ Peach

